

II. 主要 懸案

1. 李鵬 總理 訪韓과 考慮 事項

- 李총리의 訪韓은 중국 경제력을 근거로 한 외교에서의 자신감 표현임.
- 訪韓 목적은 양국간 경험 확대외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있음.
- 향후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, 實利 外交를 추구해야 함.

○ 李鵬 총리 訪韓의 의미

- 시기적으로 이번 방문이 金日成 死後 북한내 권력 승계와 北美 고위급 회담 타결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.
- 중국측은 李총리의 訪韓을 통해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에 刺戟(핵문제, 개혁·개방 관련)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.
- 또 다른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北美 관계 개선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한국에게는 韓中間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.
- 결국 李총리 訪韓의 의미는 향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음.

○ 李鵬 총리 訪韓의 특징과 목적

- 政經分離 原則의 적용
 -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政經分離 原則을 적용해 오고 있음.
 - 對北韓: 중국은 김일성 사후 북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수 없음. 그 이유는 혈맹의 차원에서 보다, 불안정한 북한은 중국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며, 나아가 중국의 안정적인 개혁·개방 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.
 - 對南韓: 경제적으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적극 활용하며, 특히 정책적으로 일부 지역(山東省, 東北3省 등)의 경제 발전과 한국 경제를 연계시켜 놓고 있음.
-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도
 - 결국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함께 경제적인 실리를 함께 챙기겠다는데 목적이 있으며, 이러한 중국측의 의도는 實利 外交의 전형으로 볼 수 있음.

○ 訪韓의 성과 및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

- 李총리의 訪韓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은 곳에 올려 놓은 것은 사실임.
- 향후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, 냉전적인 사고보다는 효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함.
- 특히, 북한의 존재를 고려할 때,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모색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. (김 정 균)